



남부고시온라인 나래국어 이유진 2015 기상직 9급 국어 해설

문 1.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¹⁾

- ① 백령도 Baengnyeongdo ② 울릉도 Ulleungdo
- ③ 북한산 Bukhansan ④ 압록강 Amrokgang

문 2. 다음 중 어휘의 사용이 정확한 것은?²⁾

- ① 박 교수는 대증요법을 통해 난치병을 극복하였다.
- ② 이 선생님은 학생들과 일 년 동안 동거동락하였다.
- ③ 부모님들은 주구장창 자식 걱정뿐이다.
- ④ 최 과장님은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가을에 결혼을 하셨다.

문 3. ㉠~㉣ 중 다음 밑줄 친 '먹기'와 품사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³⁾

나는 배가 고파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 그는 밤새 믿기지 않는 ㉠꿈을 꾸었다.
- 그는 '초상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그의 ㉢바람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 그는 빙그레 ㉣웃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4.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⁴⁾

- ①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나 딸 수 있을지 궁금하다.
- ② 오늘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공구를 사야겠다.
- ③ 식사를 할 때에는 먹을 만큼만 덜어 먹도록 하여라.
- ④ 우리는 수험생이므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문 5. <보기>와 같은 유형의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문장은?⁵⁾

<보 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안전에 찬성하였다.

- ① 옛날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여생을 즐겼다.
- ②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③ 바른 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악부터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 ④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문 6. 다음 중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⁶⁾

나·랏:말싸·미 中 國·국·에 달·아,
 文 明·字·종·와·로 서 르 스·뫼·디·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린 백·뽁·성·이
 니 르·고·저·홀·배·이·셔·도
 只·츄:내 제·쓰·들 시·러 퍼·디·몬 홀·노·미 하·니·라
 ·내·이·를 爲·왕·하·야:어·엿·비·너·겨
 ·새·로 ㉠·스·물·여·뽁·字·종·를·밍·노·니
 :사·름·마·다·히·애:수·비·니·겨
 ·날·로·부·메 便 安·환·키·하·고·저 홀·쓰·러·미·니·라.

① △ ② ㅁ ③ ㅇ ④ ·

문 7.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⁷⁾

단어	의미	문장 만들기
놀다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 이 지내다.	⇒ ①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다.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 겁게 지내다.	⇒ ② 우리 회사는 매주 월요 일에 논다.
	신체 부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	⇒ ③ 손이 곱아서 손가락이 제대로 놀지 않는다.
	물자나 시설 따위를 쓰 지 않다.	⇒ ④ 부품 공장마다 노는 기 계가 없다.

문 8. <보기>와 관련하여 중세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⁸⁾

<보 기>

중세 국어에서 의문은 물음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는가', '-는가'와 같은 '아'형 어미와 '-고', '-고'와 같은 '오'형 어미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아'형은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 사용되고, '오'형은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는 물음말의 존재와 관계없이 '-는다'가 사용되었다.

- ① 西京(서경)은 편안하가 몸흔가
- ② 이도곤 ㄹ즈데 또 어되 잇닷 말고
- ③ 너는 천고 흥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 ④ 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가

문 9. <보기>의 밑줄 친 것과 같은 현상을 비판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⁹⁾

— <보 기> —

근대화라고 불리는 사회의 구조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아직도 많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래적인 행위 양식도 적지 않게 확산되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중간적인 단계에서의 문화는 일종의 혼합 문화(混合文化)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의 문화적 특징은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에서 계층 간, 세대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하고, 소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混在)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사회 성원들은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문화의 이중 구조에 속하게 되고, 일반적인 적합성을 가지는 행위 양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아노미(anomie)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노미 상황에서는 일탈적(逸脫的)인 적응기제(適應機制)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위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 성원들은 관념적으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행위 양식에서는 권위주의적 규범에 더 가깝게 행동하는 등 가치와 가치, 가치와 규범, 규범과 규범 간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기적인 가치와 규범은 흔히 외래적인 가치의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와 함께 도입되는 물질주의는 배금주의(拜金主義)나 황금만능주의로 변질되기 쉽고, 근대적 시민 사회의 중심적 가치의 하나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전락되기 쉬운 것이다.

- 임희섭,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 ①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 ②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
- ③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④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문 10. 다음 글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¹⁰⁾

3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판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정○○ 대표가 창업한 △△산업은 1981년 창업 초기부터 염료 한 분야에 전력해 반응성 염료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6위의 강자로 떠올랐다. 정 대표는 이날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대학과 월급쟁이 시절을 포함하면 총 48년간 염료 생각만 하고 살았다.”며 “오랜 시간 땀 흘리며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 ① 與世推移 ② 功虧一簣 ③ 犬馬之勞 ④ 愚公移山

문 11. ‘곳에서 놀이로 전화(轉化)’한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¹¹⁾

‘곳(제의)’에서 종교적 의미가 희석되면 곳은 ‘놀이(연희)’로 전화(轉化)하게 된다. 춤놀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희자 간의 무용, 노래, 재담 등은 원래 원시 시대의 곳에서는 주신(주무)과 배신(소무)사이, 또는 주신, 배신, 무 사이의 대무(對舞), 대화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사권이 소수의 사제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비의로서 신비화되고, 그 주술성의 효과도 널리 집단에 의해 믿어졌기 때문에 곳은 집단 전체에 있어 언제나 종교적 외포(畏怖)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의 경과와 더불어 중세적 사회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져 종래의 제사 독점에서 오는 의례의 신비성도 차차 희박해지고, 기술력의 상승으로 자연의 불규칙성도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면서, 의례가 가지는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집단의 의례 자체를 종교적 외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 시점에서 종래의 주신, 배신, 무 사이의 대무와 대화는 종교적 의미를 서서히 잃고, 구경거리 혹은 예능, 더 나아가 연극으로 전화(轉化)하기에 이른다.

-이두현, <한국 축제의 역사>

- ① 자연이 지닌 불규칙성 극복
- ②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 상실
- ③ 예술적 감상에 대한 욕구 증대
- ④ 사제자의 제사권과 독점적 지위 약화

문 12.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있는 것은?¹²⁾

- ① 액셀러레이터, 그라데이션, 깡통기
- ② 콘텐츠, 아이새도, 밀크셰이크
- ③ 코스모폴리턴, 엘니뇨, 포크레인
- ④ 라스베이거스, 판다, 컨소시엄

문 13. <보기>에 표현된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¹³⁾

— <보 기> —

처음 공부할 때에는 먼저 들뜬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들뜬 생각을 억지로 배제할 수는 없다. 억지로 배제하려고 하면 이로 인해 도리어 한 가지 생각을 더 첨가시켜 마침내 정신적인 교란만을 더하게 된다. 어깨와 등을 꼳꼳이 세우고, 뜻을 높여 한 글자 한 구절에 마음과 입이 상응하게 되면, 뜬생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게 된다.

뜬생각이란, 하루아침에 깨끗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오직 수시로 정신을 맑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 심기가 불편하여 딱 얽매어 없어지지 않으면, 묵묵히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배꼽 근처에 집중시킬 때 신명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뜬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과연 이러한 방법을 잘 실행한다면, 얼마 안가서 공부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효험이 점차 늘어나 오직 학식만이 날로 진척될 뿐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일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에만 힘쓰고 정밀하게 된다. 위로 이치에 통달하는 학문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홍대용, <매헌에게 주는 글>

- ① 세상살이의 기본 원리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 ②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은 언어를 통해 설명하기 어렵다.
- ③ 일정한 형식을 갖춘 후에야 일정한 내용이 형성되는 법이다.
- ④ 다양한 지식이 논리적인 판단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문 14. <보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⁴⁾

— <보 기> —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명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위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과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 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 ① 공간적 질서에 따라 제재를 배열하는 자연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 ② 나무에 대한 세 가지 느낌을 뚜렷하게 대비하고 있어 대조법이 쓰인 셈이군.
- ③ 화자의 내면 변화를 나무의 변화인 것처럼 표현하여 미적 효과를 높였어.
- ④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강한 인상을 남기는 표현법이 쓰였어.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⁵⁾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頰)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올만(灣)의 과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었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운 손 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르쳤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① 어조를 절제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수미 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문 16. 다음 시조에 나타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¹⁶⁾

여기를 더기 삼고 더기를 예 삼고저
여기 더기를 멀게도 삼길시고
이 몸이 胡蝶이 되어 오명 가명 흐고저

- 김구(金絳)

- ① 불가능한 것을 비유로 들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②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선인의 고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의어를 통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대립을 표상하고 있다.
- ④ 농촌을 시적 공간으로 삼아 전원 생활의 흥취를 묘사하고 있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⁷⁾

회사정에서 다행히 대인(大人)을 만나고, 늙은 재상은 옥문관으로 귀양을 가다.

각설, 이때 총렬은 모친을 잃고 물에 빠져 살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두 발이 닿아 자세히 살펴보니 물속의 큰 바위였다. 그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우러러 어미를 찾았으나 간 데 없고, 사방을 돌아보니 푸른 산이 은은하고 다만 물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가에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밤늦도록 슬피 우니, 총렬이 통곡하며 바위 위에 서 있더라.

이 때 남경의 장사꾼들이 재물을 많이 싣고 북경으로 가면서 회수에 배를 띄워 놓고 두둥실 증류로 내려가는데, 처량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지라. 뱃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배를 바삐 저어 우는 곳을 찾아가니, 과연 한 동자 물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다. 급히 건져 배 안에 올려놓고 사연을 물으니, “해상에서 수적을 만나 어미를 잃고 읍니다.” 하는지라. 뱃사람들이 슬픔에 젖어서 총렬을 물가에 내려놓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한 후 배를 띄워 북경으로 향하더라.

총렬은 뱃사람들과 이별하고 정처 없이 다니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여 먹고, 아무데서나 빌어서 잠을 자곤 했다. 아침에는 동쪽에 있고, 저녁에는 서쪽에 있으니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요, 오가는데 종적이 없으니 푸른 하늘을 떠다니는 뜬구름이었다. 얼굴이 비쩍 말라 죽은 사람 같고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다. 가슴 속의 대장성은 때 속에 묻혀 있고 등 위의 삼태성은 헌 옷 속에 묻혔으니, 활달한 기남자(奇男子)가 도리어 걸인이 되었구나. 담장만 쌓던 부열(傅說)이도 은(殷)나라 고종인 무정(武丁)을 만났고, 발만 갈던 이윤(伊尹)도 은나라 왕인 성탕(成湯)을 만났으며, 위수(渭水)의 여상(呂尙)도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만났는데, 세월은 물같이 흘러가서 총렬의 나이도 어느덧 열네 살이 되었더라.

- 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② 사건을 빠른 속도로 서술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고전 소설의 우연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④ 회장체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 18. (가)와 (나)의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¹⁸⁾

(가) 황희(黃喜) 정승이 공무를 과하고 돌아오니, 그 딸이 물었다. “아버지, 몸 안에 기생하는 이[蟲]는 어디서 생기나요? 옷에서 생기지요?” “그렇지.” 딸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것이다!” 하자 며느리가 청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님. 이는 살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다.” 부인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대감. 둘이 다투고 있는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쩍습니까?” 정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이는 살이 아니면 알을 까지 못하고, 옷이 아니고는 붙어있질 못한다. 땀 기운이 끈적끈적한 옷과 살의 사이 바로 거기서 이가 생기느니라.”

(나) 임백호(林白湖)라는 양반이 막 말을 타려는데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외친다. “나으리! 취하셨습니다. 가족신과 나막신을 한 짝씩 신으셨네요.” 그러자, 임백호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예끼이놈. 내가 말을 탔으니 길 오른쪽에 있는 자는 날 보고 가족신을 신었다 할 터이고, 길 왼편에 있는 자는 날 보고 나막신을 신었다 할 터이니, 양쪽 신이 다른들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

- 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②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어렵다.
- ③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 ④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문 19. 각 시대별로 나타난 문학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⁹⁾

- ① 1910년대 - 전근대적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서구문학의 유입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계몽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 ② 1920년대 - ‘백조’, ‘장미촌’, ‘폐허’ 등과 같은 문예 동인지가 발간되면서 전문적인 문인들이 등장하여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 ③ 1930년대 -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문인들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브나로드 운동의 영향으로 농촌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이 등장하였다.
- ④ 1950년대 - 정치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통찰과 인식, 역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주류로 하는 참여문학이 형성되었다.

문 20.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것은?²⁰⁾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물음에 아주 쉽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난날에 일어난 사실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실들에 관해 적어 놓은 기록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흔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를 들면 김 충각과 박 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고,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고려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 일식과 월식은 모두 역사로 기록되었으면서도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사실은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를 누가 몇 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

일식과 월식은 자연 현상이면서도 하늘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되었고 목판본이나 목활자 인쇄술이 금속 활자로 넘어가는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로 될 수 없었던 것이다.

- ① 반복되는 일이 역사로 기록된 예
- ② 금속 활자가 발명된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 ③ 거대하고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이유
- ④ 김 충각과 박 처녀가 결혼한 사실이 역사가 되지 않는 이유

1) ④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제3장 제1항 붙임 규정에 따라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록강은 [압록강]으로 발음되나,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고 'Amnokgang'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백령도는 [백령도]로 발음되므로 'Baengnyeongdo'로 표기한다.
- ② 울릉도는 [울릉도]로 발음된다. '르르'이 연라아 발음될 때에는 'll'로 적는다. 따라서 'Ulleungdo'로 표기한다.
- ③ 북한산은 [부칸산]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체언에서 자음축약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Bukhansan'으로 표기한다.

2) ① 대증 요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오답 해설]

- ② '동거동락'은 잘못된 표현이다. '피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이라는 의미의 '동고동락(同苦同樂)'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③ '주구장창'은 잘못된 표현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언달아'라는 의미의 '주야장천(晝夜長川)'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④ '오곡백화'는 잘못된 표현이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라는 의미의 '오곡백과(五穀百果)'가 올바른 표현이다.

3) ① '나는 배가 고프고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의 '먹기'는 동사 '먹다'의 명사형으로, 문장 내에서 서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먹기'의 품사는 동사이다.

㉠의 '그림'은 동사 '그리다'의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의 '웃음'은 동사 '웃다'의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오답해설]

- ㉠ '꿈'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 ㉡ '바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4) ① '이번 올림픽에서 V 메달을 V 몇 V 개나 V 딸 V 수 V 있었지 V 궁금하다.'로 고쳐야 한다. '있을지'는 용언의 어간 '있'에 어미 '-르지'가 결합한 것이다. '지'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사용될 때 띄어 쓴다.

[오답 해설]

- ② '수리하는 V 데'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이다.
- ③ '먹을 V 만큼'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이다.
- ④ '공부할 V 수밖'의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가진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의존명사와 붙여 쓴다.

5) ③ <보기>의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로, 이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시된 문장은 의미의 중첩이 일어난 문장이다. '완전히 근절'에서 '근절'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의 의미로, '완전히'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의미의 중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② 올바른 문장이다.
- ④ 부사어-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대로'는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부사어 '절대로'가 아닌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6) ② 훈민정음 28자에는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ㅃ, ㅍ', 'ㅈ, ㅊ, ㅅ', 'ㅇ, ㅎ, ㅁ', 'ㄹ', 'ㅅ'의 자음 17개와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11개 모음이 해당된다. 'ㅅ'은 28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② '우리 회사는 매주 월요일에 논다.'의 '논다'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의 의미이다.

8) ④ 물음말은 의문사로, 중세 국어의 물음말은 '어느, 옛테, 므섯' 등이 이에 속한다. <보기>에 따르면,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의 경우 '오'형의 어미를 사용하였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의 경우 '아'형의 어미 사용하였다. '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가'는 의문사 '어드러로'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의문사가 없으므로 '아'형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의문사 '어디'가 사용되었으므로 '오'형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므로, 물음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니다'를 사용해야 한다.

9) ② <보기>의 밑줄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왜곡 및 변질에 대한 것이다. '글

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한 나라의 문물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그 나라의 환경이나 실정에 맞춰 변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변함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송충이가 같일을 먹으면 죽는다: 송잎만 먹고 사는 송충이가 같일을 먹게 되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뜻으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다가는 낭패를 봄.
- ③ 개 꼬리 삼 년 목어도 황도 되지 않는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뜻.

10) ④ 제시문은 꾸준한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둔 CEO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④ 愚公移山(우공이산)'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이라는 뜻으로, 제시문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與世推移(여세추이):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변함.
- ② 功虧一篑(공휴일궤): 산을 쌓아 올리는데 한 삽태기의 흙을 게을리하여 완성을 못한, 거의 된 일을 중지해 오랜 노력이 아무 보람도 없게 됨.
- ③ 犬馬之勞(견마지로):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뒷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11)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2) ③ 코즈모폴리턴(x) → 코즈모폴리턴(o), 포크레인(x) → 포클레인(o)

13)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4) ②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5)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6)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7)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8)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9)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0)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